

KOPIA 사업성과 공유 · 발전방안 논의

농진청, 사업 연찬회 열어 · 나라별 맞춤형 사업 등 논의

농촌진흥청은 14일 청내 국제회의장에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이하 KOPIA)의 연찬회를 개최해 나라별 KOPIA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KOPIA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농업 성장과 농촌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농업기술을 직접 전수하거나 개발도상국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해 보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KOPIA 센터 소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2016년 한 해 동안 추진한 KOPIA 사업성과를 보고하고, 농업환경과 기술수준 등을 분석

해 나라별 맞춤형 사업 추진을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2016년도 우수 센터로 선발된 KOPIA 케냐 센터와 베트남 센터를 시상하고, 이들 센터의 성공적인 사업성과를 공유했다.

KOPIA 케냐 센터는 양계와 씨감자 생산기술을 보급해 농가소득을 3배~4배 높이는 우수한 성과를 거뒀으며,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스콜팜'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스콜팜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해 케냐 센터는 이웃지역인 카렐과 초등학교에 교육농장을 만들어 2015년부터

고학년 학생에게 농업기술 실습교육을 하고 있으며, 생산한 농산물은 참여 학생에게 고루 분배해 가정에서 소비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교육농장에서 옥수수, 감자, 고구마, 양배추, 토마토 등 7작물 20.5톤을 생산해 학생들에게 나눠줬다.

베트남 센터는 현지에서 잘 자라는 우리나라 채소 품종을 선발해 재배기술을 전수함으로써 현지 농업인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배추, 무, 양배추, 고추, 참외 등 12작물 23품종을 선발했으며, 현지 반응이 좋은 '송정무'는 10개소에서 시범

재배 중이다.

또한 콧바람병에 저항성을 지닌 땅콩 품종 'TK10'의 종자보급체계를 구축해 144톤의 보급종을 생산했다.

농촌진흥청 정황근 청장은 "KOPIA 센터를 통해 우리나라의 농업기술이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농업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며 "다른 정부부처 또는 민간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개발도상국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농촌경제의 안정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재 20개 개발도상국에서 KOPIA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농업기술 전문가를 선발해 KOPIA 센터 소장으로 파견하고 있다.

/안재용 기자



화이트데이는 우리 쌀로 만든 떡으로

전북농협, '백설기의 날' 행사 개최

전북농협은 White-Day를 맞아 사랑 대신 도내에서 생산된 쌀로 빚은 '백설기 떡'을 주고 받는 '백설기의 날' 행사를 NH농협은행 지점에서 개최했다.

White-Day는 외국기업들의 무분별한 마케팅으로 얼룩진 전통 없는 기념일로 고가의 사랑을 주고받는 날로 인식돼 상업성이 짙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전북농협에서는 사랑 대신 하얀 쌀로 빚어 '떡' 없이 깨끗하고 신선한 음식'이란 뜻을 지닌 우리 고유 음식 '백설기 떡'을 서로 선물함으로써 쌀 소비를 촉진하고 우리 쌀 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이와 같은 행사를 실시해

왔다. 이날 행사는 NH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랑 대신 도내에서 생산된 쌀로 만든 백설기 선물해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사랑 전하기와 전북 쌀의 우수성을 알리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강태호 본부장은 "갈수록 쌀 소비량이 줄고 있어 하루에 밥 두공기도 먹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우리 전북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쌀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필요한 때에 '백설기의 날' 행사를 통한 고객들의 참여로 농가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전북중소기업청, 특화사업 제품개선 기술개발사업 접수

31일까지... 농생명 기업의 제품 경쟁력 향상 위해

전북중소기업청은 도내 특화산업인 농생명 분야 중소기업 제품개선 지원과 농생명 관련 제품의 성능과 품질 향상을 위한 '전북 특화사업 제품개선 기술개발사업'을 31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공고한 '중소기업 제품·공정 기술개발사업'의 일부 내용을 개편해 전북중기청 주도로 지역별 산업특성 및 발전전략 등을 감안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북중기청은 사업계획 수립부터 평

가·선정까지 전담해 추진하며, 수출 유망기업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는 등 각종 지원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전북중기청이 지역특화 제품개선 기술개발사업으로 농생명 분야를 지원하기로 한 배경에는 전북도의 지역산업진흥계획 및 지역 인프라를 고려한 이유가 있다.

즉, 전북도가 농생명 등 10대 산업을 핵심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하는 가

운데, 전북지역 농·식품 산업 관련 공공연구기관 등 인프라 구축 현황이 우수하다는 점이 주된 검토요인이었다.

이에 전북중기청에서는 사업주체(중앙 또는 지방)인가에 관계없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힘을 더해 도내 농생명 중소기업의 핵심역량이 배가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의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도내에 본사를 둔 농·식품 바이오 제조·가공기업이면 참여 가능하며, 총 사업비 3억원으로 과제당 9개월 이내의 개발 기간, 최대 5,000만원(정

부 출연금 75% 이내)을 6개사 내외에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31일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북중기청 정원탁 청장은 "이번 특화 R&D 지원을 통해 농생명 기업의 제품경쟁력 향상은 물론, 이에 더 나가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 및 연계지원으로 도내 농생명 기업의 글로벌 진출역량이 강화되고 수출확대로까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전북 CIS 무역사절단 파견기업 24일까지 모집

수출판로개척 지원

전북도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는 도내 수출중소기업의 CIS지역 수출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 CIS 무역사절단 파견기업'을 24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무역사절단 참가대상은 도내 소재 수출중소기업으로 5월 22일부터

31일까지 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 모스크바(러시아), 알마티(카자흐스탄)를 방문해 현지 시장조사 및 바이어와의 미팅을 통한 시장개척 기회를 갖는다.

파견규모는 10개 기업 내외이며, 참가기업은 현지 코트라 무역관의 사전

시장성 검토 등을 거쳐 현지진출 유망기업을 선정하여 파견할 계획이다.

중진공 김형수 본부장은 "CIS 무역사절단은 2014년도 파견이후 러시아 경제제재가 본격화된 2015년부터 중단됐으나 최근 러시아 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3년만에 상당

회를 진행하는 만큼 도내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전북도 수출지원관리시스템(<http://jtrade.jonbuk.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문의는 전북중기청 수출지원센터 중진공 현장지원단(063-210-6466~7)으로 하면 된다.

/안재용 기자

JB우리카페탈, 미안마 소액대출시장 진출

JB우리카페탈이 미안마 소액대출시장에 진출해 영업을 개시한다.

JB우리카페탈은 지난 13일 미안마 금융당국으로부터 소액대출법인 영업인가를 취득했다.

미안마는 2011년 경제 자유화 조치 이후 지속적으로 연 8%대의 고속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국민 대부분이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어 제도권 내 소액 대출시장의 성장성이 매우 높은

국가이다.

JB우리카페탈 미안마 현지법인인 'JB 카피탈 미안마'의 본점은 최대 경제도시인 양곤에 위치할 예정이다.

이후 영업지역을 확대해 미안마에서 소매금융상품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JB 카피탈 미안마는 우선 교외 지역의 농민이나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액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이후 현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뒤 오토바이 할부, 농기계 구매 자금 대출 등 차별적인 금융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안재용 기자

도로공사 전북본부, 졸음사고 예방 결의대회 행사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14일 호남고속도로 정읍 휴게소에서 2017년 졸음사고 예방 결의대회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불철을 맞아 증가하는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며 고객에 대한 교통안전 집중 홍보를 통해 안전의식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했다.

고속도로순찰대, 교통안전공단 및 도로교통공단 등 고속도로 교통업무 유관기관이 함께 한 이번 행사에서는

휴게소 방문고객에 대한 교통안전 캠페인과 안전띠 시뮬레이터 탑승체험도 실시해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또한, 지난 11월부터 고속도로 제설작업에 참여한 총 20대의 덤프차량 측면에 졸음운전 예방 홍보현수막을 부착하고 호남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카퍼레이드를 실시해 졸음운전 예방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안재용 기자

경진원, 스타트업-청년취업 매칭사업 참여 신청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청년희망재단과 함께 지역 신생기업과 청년인재의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한 '스타트업-청년취업 매칭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만 15~34세의 청년 인재를 신규채용 한 경우 맞춤형 구인지원은 물론 신규 고용한 청년인재 1명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

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7년 미만, 상시근로자 30인 이하의 신생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여신청은 경진원 홈페이지(www.jbba.kr) 공지사항에 안내하고 있으며 청년인재 40명을 모두 매칭시키면 사업이 완료된다. 자세한 문의는 전북일자리종합센터(063-280-4775)로 연락하면 된다.

/안재용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